

하나님께서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인도자 : 가족 중

- 목 상 기 도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도 신경 다 같 이
- 찬 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 이
- 대 표 기 도 가 족 대 표
-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5:1~12 다 같 이

(1)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 말 씀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 다 같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부분으로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소개해주는 것으로 그중 복에 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된 자에 대해 말해주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불쌍한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정의하시는 복은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 외형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 내면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단순히 생각하면 좌절감과 낭패감이 앞서게 되는데 그것은 지상에서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의 갈증,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핍박과 같은 것은 지갑을 두통하게 하고 권력의 수직상승 같은 성공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복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복이라고 단정하신 이 복을 주님과 관계없이 나의 유익으로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쓸데없고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밀착과 연합이 복이라면 그러한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애통의 대상은 모든 시대와 온 땅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고도 함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시험에 든 모든 사람들이 애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된 이유는 바로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나 개인의 일이 잘 풀려서 받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죄사함 때문에 받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한없는 기쁨과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위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엡2:9)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큰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많고 또 설 명절을 맞이하지만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감사하는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복을 전하면서 함께 위로받고 새힘을 얻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 찬 송 93장(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같 이
- 주 기 도 문 다 같 이

[교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머리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대한 전율이 가슴으로 전달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훈련의 장이 되도록 결단하고 노력합시다.